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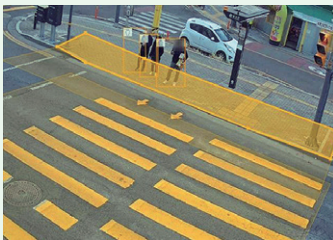
##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시도

대구시 교통정보운영과  
2025.1.9.

제주도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2025.2.6.



스마트횡단보도 개념도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현장

출처: 대구시. (2025).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기술로 보행자 안전 지킨다. 1월 9일 보도자료.

### 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스마트횡단보도 본격 운영

대구시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횡단보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양 끝단에 인공지능 기반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보행자를 자동 감지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문구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맞은편까지 다다를 시간이 부족한 경우 녹색신호 시간을 조금 연장해 보행자가 안전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시는 2023년 서구 6개소에서 스마트횡단보도를 시범 운영하고 2024년에는 서비스 지역을 대구 전역 20개소로 확장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마트횡단보도의 본격 도입과 함께 시는 일정 기간 운영 후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2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용 만족도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제주도, 학교 안전 등하곳길 안전협의체 운영

제주도는 올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안전 등하곳길 안전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 안전 등하곳길 안전협의체는 어린이 등하교 시 안전 위해요소 근절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보강, 교통법규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역할 분담,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체에는 교육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한다.

안전협의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192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그중 통학로 조성,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등 141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3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치경찰단, 행정시 등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홍보 캠페인 등과 연계해 학교 등하곳길 사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과 언론보도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안전협의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